

요한계시록 22:11-15의 행위 심판

김경식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강사)

I. 서론

요한계시록은 행위 심판을 네 차례에 걸쳐 다루고 있다. 요한계시록 중에서 가장 난해한 부분인 6-16장까지에 세 종류의 재앙시리즈가 나온다는 점만 보아도 요한계시록은 어떤 면에서 심판에 관한 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뒤에 이어지는 음녀 바벨론에 대한 심판(17:1-19:10), 그리고 백보좌 심판(20:11-15) 장면이 모두 다 이 심판의 주제와 깊은 관련이 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요한계시록 저자가 하나님/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행위 심판의 사상을 네 차례에 걸쳐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¹⁾ 요한계시록에서 4라는 숫

1) 계 2:23, 18:6, 20:12-13, 22:12.

자가 갖는 상징적 의미인 ‘완전함’ 혹은 ‘전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볼 때, 행위 심판의 주제가 네 번 사용된다는 점은 행위 심판이 온 세상 전체에 미치는 전체적 심판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²⁾

더 나아가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이 행위 심판의 문맥에서 저자는 시편 62:13을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다수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요한계시록은 비록 구약을 직접적인 인용형식을 통해 사용하지는 않지만, 구약에 대한 암시가 계시록 구절구절마다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바이다. 하지만 이런 요한계시록의 풍부한 구약사용에 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에서의 시편 62:13의 사용과 해석은 연구된 바가 없다. 본 논문은 지금까지 간과되어 온 시편 62:13의 사용에 관심을 갖고, 특별히 이 시편이 왜 행위 심판의 문맥에서 쓰이고 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요한계시록 22:1에 초점을 맞추어 시편 62:13과 행위 심판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려고 한다. 요한계시록 22장은 계시록의 결론부로서 여기서 저자는 요한계시록의 행위 심판을 포함한 거의 모든 주요 사상을 이 부분에서 요약,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위해서 필자는 먼저 요한계시록 22:12에서 정말로 시편 62:13이 쓰이고 있는지를 증명할 것이다. 다음으로 요한계시록 22장의 문맥과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행위 심판사상을 언급하는 요한계시록 22:12의 위치를 전체 문맥과 구조에서 파악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행위 심판사상을 시편 62:13의 사용을 염두에 두며, 그 심판의 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2) G. K. Beale, *The Book of Revelation: A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NIGTC (Grand Rapids: Eerdmans, 1999), 59.

II. 요한계시록 22:12와 시편 62:13

계시록 저자는 요한계시록 22:12b에서 시편 62:13을 사용하고 있다. 이 구절에서 저자는 이사야 62:11과 시편 62:13을 결합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런 본 논문의 주장과는 달리, 계시록 학자들은 요한계시록 22:12에서의 구약 사용에 대해 각기 다른 견해를 밝혀왔다. 그러나 공통적인 견해는 이 구절 특히 22:12b에서 요한은 구약의 어떤 특정 본문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는 주장이다.

1. 학자들의 견해

우선 아우니(David E. Aune)는 요한계시록 22:12a에서 이사야 40:10이 느슨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를 포함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22:12b를 어떤 특정 구약본문과 연관시키길 꺼려한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계시록 저자는 요한계시록 22:12b에서 단지 구약과 초기유대교 문헌에서 흔히 발견되는 표현들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³⁾ 이와는 약간 달리 프리겐트(P. Prigent)의 주장에 따르면, 요한계시록 22:12는 이사야 40:10 (과/혹은 이사야 62:11), 그리고 잠언 24:12를 합쳐놓은 것이다. 하지만 그는 제1클레멘트서신 34:3이 이사야 40:10과 똑같은 구절을 인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요한계시록 22:12는 “초기 기독교회들에서 널리 알려져 있던 합성본문”이라고 주장한다.⁴⁾ 비일(G. K. Beale)은 요한계시록 22:12가 이사야 40:10과 이사야 62:11을 요한이 자유

3) David E. Aune, *Revelation 17-22*, WBC (Nashville: Thomas Nelson, 1998), 1218.

4) P. Prigent, *Commentary on the Apocalypse of St. John* (Tübingen: Mohr Siebeck, 2001), 639. 참고, 1 Clement 34:3 “For he forewarns us: “Behold, the Lord comes and his reward is with him, to pay each one according to his works.””

롭게 번역해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⁵⁾ 나아가 그는 요한계시록 22:12가 마태복음 16:27에서 발견되는 예수의 말씀을 반영하고 있다고 암시한다.⁶⁾ 마지막으로 부르거만(Dale A. Brueggemann)은 요한계시록 22:12가 시편 27:4(28:4, MT) 그리고 시편 61:13(62:13, MT)을 분명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각주에서는 그 구절이 이사야 40:10과 예레미야 17:10이 결합된 형태라고 덧붙인다.⁷⁾ 결국 그는 계시록 22:12가 시편 62:13(61:13, LXX)만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느슨한 형태로 이 시편 본문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힌다. 결국 위의 학자들에 따르면 요한계시록 22:12b는 구약의 어떤 특정 본문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대다수의 학자들은 요한계시록 22:12가 구약의 여러 본문들에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든지, 아니면 구약의 표현을 빌려 쓰고 있다고만 보고 있지 계시록 저자가 구약의 어떤 특정 본문과 그 문맥 전체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

2. 본문들의 비교

보다 분명하게 이 논문의 논지를 펴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요한계시록 22:12와 이 구절에서 쓰인다고 여겨지는 구약의 각 본문들을 비교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의 비교는 요한이 요한계시록 22:12b에서 시편 62:13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것이다.

계 22:12

Ἰδοὺ ἔρχομαι ταχύ, καὶ ὁ μισθός μου μετ' ἐμοῦ ἀποδοῦναι ἑκάστῳ ὡς τὸ ἔργον ἐστὶν αὐτοῦ.

5) Beale, 앞의 책(1999), 1136.

6) 앞의 책, 1138.

7) Dale A. Brueggemann, "The Use of the Psalter in John's Apocalypse," Ph.D. diss.,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1995, 111.

시 62:13(MT)

וְלֹא-אֶיֱנִי חֶסֶד כִּי-אַתָּה תְּשִׁלֵּם לְאִישׁ כְּמַעֲשָׂהוּ.

시 61:13(LXX)

ὅτι τὸ κράτος τοῦ θεοῦ καὶ σοί κύριε τὸ ἔλεος ὅτι σὺ ἀποδώσεις
ἐκάστω κατὰ τὰ ἔργα αὐτοῦ

사 40:10(MT)

הָנָה אֲנִי יְהוָה בְּתוֹךְ יְבוֹא וְזִרְעוּ מְשָׁלָה לּוֹ הָנָה שָׂכְרוּ אֹתוֹ וּפָעִלְחוּ
לְפָנָיו:

사 40:10(LXX)

ἰδοὺ κύριος μετὰ ἰσχύος ἔρχεται καὶ ὁ βραχίων μετὰ κυριείας ἰδοὺ ὁ
μισθὸς αὐτοῦ μετ' αὐτοῦ καὶ τὸ ἔργον ἐναντίον αὐτοῦ.

사 62:11(MT)

הָנָה יְהוָה הַשְׁמִיעַ אֶל-קִצֵּה הָאָרֶץ אָמְרוּ לְבַח-צִיּוֹן הָנָה יִשְׁעָךְ בָּא הָנָה
שָׂכְרוּ אֹתוֹ וּפָעִלְחוּ לְפָנָיו:

사 62:11(LXX)

ἰδοὺ γὰρ κύριος ἐποίησεν ἀκουστὸν ἕως ἐσχάτου τῆς γῆς εἶπατε τῇ
θυγατρὶ Σιών ἰδοὺ σοι ὁ σωτὴρ παραγίνεται ἔχων τὸν ἑαυτοῦ μισθὸν
καὶ τὸ ἔργον πρὸ προσώπου αὐτοῦ

위의 본문들을 비교해 보면, 요한계시록 22:12는 구약의 두 본문 즉 이사야 62:11과 시편 62:13(HB)이 결합된 것임을 알 수 있다.⁸⁾ 페케스(Fekkes)는 καὶ ὁ μισθός μου μετ' ἐμου라는 구절은 이사야 40장

8) 필자는 여기서 의도적으로 ‘마소라 본문’(MT)과 구별되는 ‘히브리어 본문’(Hebrew Bible, 약자 HB)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HB는 좀더 넓은 의미의 히브리어 (아람어 포함) 구약 본문을 가리키며, 이에 비해 MT는 단지 이 히브리어 본문(HB) 가운데 한 종류에 지나지 않는다.

혹은 이사야 62장에서 왔을 것이라 추측하면서도, 이사야 62(LXX)의 문맥을 살핀 후, 결국 이사야 40:10보다는 이사야 62:11이 요한계시록 22:12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그에 의하면,

이사야 40:10에서 상 주시는 이는 주 하나님이다. 하지만 이사야 62:11에서는 제3이사야가 그의 선행자의 어휘를 재적용하여 메시아적 해석의 길을 열어놓는다... 상주는 일을 그리스도와 연관시키는 것은 칠십인역에서 훨씬 더 자연스럽게 된다. 왜냐하면 칠십인역은 구원(salvation)을 구원자로(savior)로 번역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사야 40:10에서 언급되는 상은 단지 포로로부터 귀환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사야 62:11은 종말론적 보상이라는 사상에 훨씬 잘 맞아떨어진다.⁹⁾

이사야서 문맥을 중심으로 살핀 이러한 페케스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보고, 본 논의는 요한계시록 22:12b(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첫째, 요한계시록 22:12b(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와 시편 62:13(MT) 두 본문이 각각 다른 언어로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본문은 눈에 두드러지게 구문론적 유사성(syntactical similarity)을 가지고 있다. 이 두 구절 사이에는 비슷하게 대응하는 단어들과 구절이 있다. 즉 동사(עָלַמְתִּי ἀποδίδωμι), 대명사(וְאֵלֶיךָ ἐκάστω) 그리고 유사한 구(וְכָל־הַיְּמִינִי ὡς τὸ ἔργον... αὐτοῦ) 등이 존재한다. 환언하면 헬라어 단어들의 합성과 어순이 시편 62:13의 히브리어 본문의 어순을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시편 62:13(HB)과 요한계시록 22:12b간의 개념적 유사성 또한 요한이 시편 62:13을 요한계시록 22:12b에서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

9) J. Fekkes, *Isaiah and Prophetic Traditions in the Book of Revelation: Visionary Antecedents and their Development*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4), 276-278.

준다. 물론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 요한계시록 22:12b와 시편 62:13 그리고 이사야 62:11 모두 보상(갚아줌, repayment)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시편 62:13과 요한계시록 22:12b는 이사야 62:11이 가지고 있지 않는 개개인에 대한 보상(갚아줌)이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III. 가능한 반론들

이 단계에서 우리는 우리의 논지인 계시록 저자가 요한계시록 22:12b에서 시편 62:13(HB)을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에 제기될만한 반론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가 필요한 이유는 대다수의 학자들이 요한계시록 22:12에서의 시편 62:13(HB) 사용에 대해 지나치게 회의적이기 때문이다. 첫 번째 반론으로 제기될 수 있는 사항은 아마도 요한계시록 22:12b에서 ‘행함’(ἔργον)이라는 단어가 단수형태라는 점일 것이다.¹⁰⁾ 이 ‘행함’(ἔργον)이라는 명사는 요한계시록에 19번 쓰이는데, 흥미로운 것은 오직 요한계시록 22:12에서만 단수로 쓰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아우니(Aune)같은 학자는 계시록 저자가 요한계시록 22:12에서 ‘전통적인 잠언 형식’(a traditional proverbial formulation)을 사용하고 있다고 여긴다.¹¹⁾ 하지만 우리의 논지를 지탱시켜주는 두 가지 근거가 있다.

첫째,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구절(ὡς τὸ ἔργον ἐστὶν αὐτοῦ)에만 국한시켜보면, 요한은 시편 62:13의 칠십인 역본을 사용하기보다, 히브리어 본문(HB)을 반영하고 있는 듯하다. 만일 요한이 시편 62:13의 칠십인역의 어떤 본문을 단순히 빌려 쓴 것이 아니라, 이 시

10) David E. Aune, 앞의 책(1998), 1218.

11) 앞의 책, 1218.

편 구절의 히브리어 본문(HB)을 직접 헬라어로 번역했다면 요한계시록 22:12b와 같은 번역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이다.¹²⁾ 즉 이 시편 히브리어 본문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단수형태의 명사가 나올 수 있는데, 계시록 저자가 시편 62:13(HB)을 문자적으로 번역하기보다는, 해석적으로 번역하면서도 요한계시록 22:12의 단수명사(ἔργον)는 히브리어 본문의 단수형태를 유지했다고 볼 수 있다. 마태복음 16:27이 이런 가능성을 지지해준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6:27은 시편 62:13을 사용하면서 요한계시록 22:12와 마찬가지로 단수형태의 명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계시록 저자는 요한계시록 22:12b에서 왜 굳이 단수형태의 명사를 사용했는가 하는 질문해볼 수 있다. 이것은 계시록 저자의 문체와 관련이 있다. 버컴(R. Bauckham)에 따르면, 요한이 선호하는 기법 가운데 한 가지는 동일한 구절을 약간씩 변형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한다는 점이다.¹³⁾ 요한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개념을 계시록에서 총 네 번 사용하고 있는데(2:23, 18:6, 20:12-13, 22:12) 이 때마다 그는 이 구절들을 약간씩 변형시켜서 쓰고 있다.

계 2:23 καὶ δώσω ὑμῖν ἐκάστω κατὰ τὰ ἔργα ὑμῶν.

계 18:6 ἀπόδοτε αὐτῇ ὡς καὶ αὐτὴ ἀπέδωκεν καὶ διπλώσατε τὰ διπλά κατὰ τὰ ἔργα αὐτῆς.

계 20:12-13 καὶ ἐκρ(θ)ησαν οἱ νεκροὶ ἐκ τῶν γεγραμμένων ἐν τοῖς

12) 물론 또 하나의 가능성은, 계시록 저자가 시편 61:13(LXX)과는 다른 알려지지 않은 시편 62:13의 헬라어 번역 본문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런 견해는 단지 추측일 뿐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구약본문의 헬라어 번역본 중 어디에도 단수형태의 본문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13) Richard Bauckham, *The Climax of Prophecy: Studies on the Book of Revelation* (Edinburgh: T. & T. Clark, 1993), 22.

βιβλίους κατὰ τὰ ἔργα αὐτῶν καὶ ἐκρίθησαν ἕκαστος κατὰ τὰ ἔργα αὐτῶν.

계 22:12 Ἴδου ἔρχομαι ταχύ, καὶ ὁ μισθός μου μετ' ἐμοῦ ἀποδοῦναι ἕκάστῳ ὡς τὸ ἔργον ἐστὶν αὐτοῦ

요한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주제를 언급할 때마다 동사, 대명사 등을 변형시키고 있다.¹⁴⁾ 요한계시록 2:23에서 그는 시편 62:13의 동사를 바꾼다. 또 요한계시록 20:12-13에서는 동사의 태를 능동태에서 수동태로 전환시키고 있으며, 요한계시록 22:12에서 요한은 전치사 구절 <κατὰ τὰ ἔργα+소유대명사>를 ὡς τὸ ἔργον ἐστὶν αὐτοῦ로 변화시킨다. 따라서 행함이라는 명사를 복수에서 단수로 바꾼 것 또한 계시록 저자의 글 쓰는 습관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요한계시록 22:12b에서 계시록 저자는 시편 62:13의 히브리어 본문의 단수형태 명사를 반영하여 단수형태의 명사를 사용하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요한계시록에서 행위 심판 사상을 사용할 때마다 매번 다른 표현을 쓰려는 저자의 글 쓰는 습관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논지에 대한 두 번째 가능한 반론은 보스(Louis A. Vos)가 제기한 내용이다. 그는 요한계시록 22:12b에서 요한은 시편 62:13이 아니라, 마태복음 16:27에 있는 예수의 말씀을 사용했다고 주장한다. 그는 마태복음 16:27과 요한계시록 22:12사이에 매우 유사한 개념들이 존재함에 주목한다. 즉 먼저 화자와 임하시는 주체가 동일한 인물이다. 둘째로 심판과 재림이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셋째로 두 본문에는 똑같이 상 주시는 행위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행동이라는 유사성들이다.¹⁵⁾ 더구나 그는 요한계시록 22:12의 τὸ ἔργον과

14) 계 18:6에서 요한은 행위 심판의 주제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들에 대한 행위 심판이라는 개념은 이 구절에서 발견할 수 없다.

마태복음 16:27의 ἡ παράλις가 모두 단수라는 사실에 주목한다. 그리고 그는 두 본문들 모두 동일한 동사 ἀποδίδωμι를 쓰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¹⁶⁾ 그는 이 동사가 심판과 상 개념 둘 다를 마태복음 16:27과 요한계시록 22:12가 가지고 있다고 여긴다. 이런 관찰을 토대로, 그는 요한이 요한계시록 22:12에서 마태복음 16:27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에 해당하는 아람어 구절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요한계시록 22:12가 구약 혹은 유대교전승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¹⁷⁾ 이러한 그의 주장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으므로 좀더 심도 있게 평가해보기로 한다.¹⁸⁾

여러 가지 가능성 가운데 가장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 것은 계시록 저자가 마태복음 16:27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면서 시편 62:13을 사용하고 있다는 가능성이다. 이 경우에 요한의 시편 62:13 사용은 예수의 시편 62:13 사용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좀더 자세히 논지를 펴자면, 다음과 같은 증거들이 계시록 저자가 마태복음 16:27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시편 62:13을 사용하고 있다는 필자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첫째, 시편 62:13(HB)과 요한계시록 22:12 사이에는 현저한 문자적 유사성이 존재한다. 앞에서 논의했던 바대로, 요한이 시편 62:13 본문을 직접 헬라어로 의역해서 번역했다면 요한계시록 22:12는 마태복음 16:27보다는

15) Louis Arthur Vos, *The Synoptic Traditions in the Apocalypse* (Kampen: Kok, 1965), 176.

16) 앞의 책, 177.

17) 앞의 책, 177.

18) 바울서신에서 예수전승을 연구하는 신약학자들은 바울서신과 복음서 사이의 연대상의 문제에 봉착한다. 하지만 계시록에서 예수 전승을 찾는 일은 연대상의 문제와 관련이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소수학자들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계시록 학자들은 계시록이 복음서보다 더 늦게 씌어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시편 62:13(HB)에 더 가깝다. 만일 요한이 마태복음 16:27에 나오는 예수 말씀을 인용했다라면, 그는 ἔργων 대신에 πράξις를 사용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시편 62편과 요한계시록 22:11, 15를 비교해보면 두 본문은 공통적으로 불의, 거짓, 살인으로 악인의 특징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불의(시 61:11; 계 22:11), 거짓(시 61:5; 계 22:15), 살인(계 22:15, 시 61:4[LXX]). 이와 같이 시편 62편과 요한계시록 22:12 그리고 그 근접 문맥 사이의 이런 관계는 요한이 요한계시록 22:12b에서 시 62:13을 사용하고 있음을 뒷받침해준다. 하지만 이런 결론은 요한계시록 22:12가 마태복음 16:27의 예수 말씀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말은 아니다. 그 까닭은 두 본문이 예수의 재림과 행위 심판이라는 두 개의 사상을 아주 밀접하게 한 구절 안에서 관련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신약 본문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계시록 저자는 요한계시록 22:12에서 이사야 62:11과 시편 62:13 (HB)을 결합해 사용하고 있다. 게다가 그는 시편 62:13을 사용하면서 칠십인역에서 발견할 수 있는 구절을 가져다 쓰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 본문(HB)을 직접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요한계시록 22:12와 마태복음 16:27에 나오는 예수 말씀 사이의 개념상의 유사성은 계시록 저자가 시편 62편을 예수께서 그 시편을 해석하셨던 방식대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IV. 요한계시록 22:10-16 문맥과 구조 분석

요한계시록 22:12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구절이 놓여 있는 문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요한계시록 22:6-21은 요한계시록의 결론부라고 부른다.¹⁹⁾ 하지만 이 결론부는 화자가 누구인가

19) Beale, 앞의 책(1999), 1122. Beasley-Murray, *The Book of Revelation* (London:

의 관점에서 볼 때, 통일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비슬리-머리(Beasley-Murray)는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계시록의 서론부와는 달리, 결론부는 계획성이 없다는 인상을 받는다. 말들이 상대적으로 서로 상관성이 없어 보이고 누가 말하고 있는지 판단하기 곤란할 정도로 산만하다.”²⁰⁾ 이런 다수의 견해와 달리, 필자의 구조분석에 의하면, 계시록의 결론부가 체계적임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요한계시록 22:6-21은 다음과 같은 여섯 대목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22:6-9	결론부의 서두
22:10-16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종말론적 심판자로서의 그리스도
22:17	초대
22:18-19	예언의 말씀(계시록)을 향한 불순종에의 경고
22:20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약속과 기도
22:21	서신서로서의 계시록에 대한 전체 결론

이제 본 논문이 다루고 있는 요한계시록 22:10-16을 살펴보면, 이 본문은 더 큰 문맥인 요한계시록 22:10-21 안에 위치해 있으면서 세 가지 주제들, 즉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12-13절), ‘거룩하라’는 권면(11, 14-15절), 그리고 예언의 말씀이 가지는 권위(10, 16절)라는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나아가 요한계시록 22:10-16은 교차대구적 구조(chiastic structure)로 구성되어 있고, 이 구조의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행위 심판을 언급하는 요한계시록 22:12b가 놓여 있다. 이러

Marshall, Morgan & Scott, 1974), 334. Bauckham, 앞의 책(1993), 3. Prigent, 앞의 책(2001), 631. M. Eugene Boring, *Revelation: Interpretation, a Bible Commentary for teaching and Preaching* (Louisville: John Knox, 1989), 224. 어떤 이들은 요한계시록의 결론부가 요한계시록 22:6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22:8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보기도 한다.

20) Beasley-Murray, 앞의 책(1974), 334.

한 구조를 다음과 같이 나열할 수 있다.

- A 예언의 말씀에 관한 신적 명령(10절)
- B 악인들의 행위(11a절)
- C 의인들의 행위(11b절)
- D 그리스도- 오실 자(12a절)
- E 각 사람이 행 한대로 갚아주는 행위 심판(12b절)
- D^{*} 그리스도- 세상의 영원하신 통치자(13절)
- C^{*} 의인들의 상(14절)
- B^{*} 악인들의 심판(15절)
- A^{*} 예언의 말씀의 신적 기원(16절)

위의 구조 분석에 의하면, 요한계시록 22:12bc는 이 교차대구적 구조의 한 중앙에 위치해 있다. 또한 이 구조 분석은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목적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려는 행위 심판임을 보여주고 있다. 더군다나 잘 알려진 바대로 요한계시록의 결론부(22:6-20)는 요한계시록 1:1-3, 나아가 요한계시록 전체의 주제들을 새로운 주제들을 첨가하면서 요약하고 있다.²¹⁾ 따라서 요한계시록 22:12에 나오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행위 심판의 주제는 요한계시록의 행위 심판 사상들을 요약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V. 요한계시록 22:12의 행위 심판 기준

요한계시록 결론부에 등장하고 있는 행위 심판의 개념(계 22:12)은 사실상 계시록 저자의 시편 62편의 해석이라고 보아야 한다. 요한계시록 결론부의 문맥과 시편 62편의 문맥을 고려해볼 때, 계시록 저

21) Boring, 앞의 책(1989), 224; John Sweet, *Revelation* (London: SCM, 1979), 314; Beasley-Murray, 앞의 책(1974), 334; Prigent, 앞의 책(2001), 631-4; Aune, 앞의 책(1998), 1201.

자가 그 시편에서 언급하고 있는 행위 심판의 기준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알게 된다. 우선 계시록 텍스트의 문맥을 보면 행위 심판의 기준이 계시록 22:11, 14, 15에서 설명되고 있다.

요한은 요한계시록 22:11에서 악인을 불의한 자(οἱ ἀδίκων)와 더러운 자(οἱ ῥυπαροί)로 언급하고 있으며, 15절에서는 심판받을 자들을 οἱ κύνες καὶ οἱ φάρμακοι καὶ οἱ πόρνοι καὶ οἱ φονεῖς καὶ οἱ εἰδωλόλατραι καὶ πᾶς φιλῶν καὶ ποιῶν ψεῦδος라고 지칭하고 있다. 반면 요한계시록 22:11은 의를 행하고 거룩함을 지키는 것을 의인의 옳게 여김(vindication)의 기준이라고 말한다. 또한 14절은 의인의 변호(vindication)의 기준을 자기 두루마리를 깨끗하게 씻는 것이라고 밝힌다. 두루마리를 씻는다는 개념은 의를 행하고 거룩하여진다는 말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앞의 구조 분석에 따르면, 악인과 의인사이의 대조가 요한계시록 22:11과 요한계시록 22:14-15 사이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이 다음에서 주장하려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즉 요한은 악인들을 묘사하면서 시편 62편의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으며, 동시에 시편 전체의 문맥을 끌어들이어 심판의 기준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계시록 저자가 요한계시록 22:12에서 고려하고 있는 행위 심판의 기준이 바로 시편 62편이 언급하고 있는 동일한 심판 기준임을 밝힐 것이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우선 시편 62편(엄밀히 말하면, 시 61, LXX)을 사용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22:15를 살피고 그 후에 요한계시록 22:11을 분석해보겠다.

1. 악인들의 목록(계 22:15)

요한은 새 예루살렘 성밖에 있게 될 악인들의 목록을 나열하면서, 심판의 기준을 암시하고 있다. 그는 요한계시록 22:15에서 여섯 부류의 사람들을 나열하는데, 흥미로운 것은 살인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라는 두 표현은 시편 61:4-5(LXX)에서도 악인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라는 점이다.

첫째, 요한은 악한 사람의 한 종류를 살인자들(οἱ φονεῖς)이라고 언급한다. 이 용어는 계시록에서 음녀 바빌론을 추종하며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며 죽이는 사람들을 언급하는 것 같다.²²⁾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시편 62편의 칠십인역은 4절에서 유사 동사(φονεύετε)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 행위를 시편 62편(61, LXX)의 악인의 행동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 61:4(LXX)

ἕως πότε ἐπιτίθεσθε ἐπ' ἄνθρωπον ΦΟΝΕΥΕΤΕ πάντες ὡς τοίχῳ κεκλιμένῳ καὶ φραγμῷ ὠσμένῳ

시편 61편(LXX)은 악인들이 살인을 저지른다고 말한다. 마소라 본문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 히브리어 본문인 시편 62:4는 악인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수동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반면에 칠십인역은 악인들이 살인을 저지른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아마도 요한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마소라 텍스트와는 다른 방식으로 시편 62:4를 읽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 결과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으로 악인을 언급하는 것이다.

둘째로, 요한은 요한계시록 22:15에서 악인들을 거짓을 좋아하고 또 거짓을 저지르는 자(πᾶς φιλῶν καὶ ποιῶν ψεῦδος)라고 묘사한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세 개의 악인 목록들을 보면, 거짓과 관련된 사람들은 이 목록들의 항상 마지막에 위치해 있다(21:8, 27; 22:15). 요한계시록 22:15에 언급된, 거짓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 입에 거짓이 없는 십사만 사천 명(계 14:5)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 십사만

22) Heinz Giesen, *Die Offenbarung des Johannes* (Regensburg: Pustet, 1997), 489.

사천 명은 어린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로, 하나님의 참된 그리고 신실한 백성들이다. 이 해석은 요한계시록 21:27에 의해서도 확실히 되는데, 이 구절은 거짓을 행하는 사람들과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을 대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관찰은 우리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결론으로 유도한다. 즉 거짓을 좋아하고 행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타협해 짐승을 따르고, 로마의 정치적, 군사적 힘과 동조하며, 결국 어린양 따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²³⁾ 또한 요한계시록 21:8과 요한계시록 22:15에 나오는 악인의 목록들 간의 긴밀한 관계는 요한계시록 22:15가 교회 내의 신실치 못한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²⁴⁾

중요한 사실은 시편 62편이 거짓이라는 단어를 악인과 연관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시편 62편은 “악인이 거짓을 즐겨워한다”(5절, כִּשְׁפוּ וַיִּשְׂכְּ)고 지적한다. 마찬가지로 시편 61:5(LXX)도 히브리어 본문의 이 구절을 ἔδραμον ἐν ψεύδει로 번역하고 있다. 따라서 히브리어 본문이나 칠십인역 번역이 공통적으로 악인을 거짓과 긴밀하게 연관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2. 불의를 행하는 자(ὁ ἀδικῶν)

계시록 저자는 요한계시록 22:11에서 불의를 행하는 자(ὁ ἀδικῶν)와 더러운 자(ὁ ῥυπαρός)라는 구절들을 사용해 악인들을 언급하고

23) Beale, 앞의 책(1999), 1141.

24) Aune, 앞의 책(1998), 1224에 반대하여 그는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 구체적으로 거짓 선생들(16:13; 19:20; 20:10) 뿐 아니라, 거짓 사도들(2:2)을 가리킨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필자의 주장은 이 단어가 어느 특정한 그룹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의미로 더 광범위한 사람들을 가리킨다는 것이다(즉 거짓 사도, 거짓 선생들 뿐 아니라, 교회내의 불충한 사람들).

있다. 계시록에서 동사 *δικέω*는 아홉 번 쓰이고 있고(2:11; 6:6; 7:2, 3; 9:4, 10, 19; 11:5; 22:11), 반면에 *ὁ ῥυπαρός*라는 단어와 이것의 동사 형태는 오직 요한계시록 22:11에서만 한번 쓰이고 있다.

우선 *ὁ ῥυπαρός*라는 단어는 주로 교회 내의 성실하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킨다. 마운스(Mounce)는 이 단어가 문자적으로 추악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데, 더 이상 설명을 덧붙이지 않고 그저 ‘윤리적으로 더러운’이라는 뜻이라고만 지적한다.²⁵⁾ 비슷하게 아우니(Aune)도 이 단어가 ‘윤리적으로 타락했다’는 의미라고 언급한다.²⁶⁾ 계시록 문맥을 보면 악인과 의인이 대조되고 이 대조가 이 단어의 의미를 밝히는 데 기여한다. 아우니가 지적했던 것처럼, 요한 계시록 22:11은 네 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첫 번째 두 개의 문장은 마지막 두 개의 문장과 정반대의 대구를 이루고 있다. 다음은 아우니의 분석이다.

- A1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 A2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 B1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 B2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²⁷⁾

여기서 A1과 B1이 정반대의 대구를 이루고 있는데, 이와 비슷하게 A2와 B2가 또한 정반대 대구를 이루고 있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A1은 불의를 행하는 자를 언급하고, B1은 의로운 자를 말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A2는 더러운 자를 언급하고 있고, 이것은

25) Robert H. Mounce, *The Book of Revelation, Revised Edition* (Grand Rapids: Eerdmans, 1998), 406.

26) Aune, 앞의 책(1998), 1217.

27) 앞의 책, 1217.

B2의 거룩한 자와 정반대 대구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거룩한 자(ὁ ἅγιος)라는 말이 더러운 자(ὁ ῥυπαρός)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암시하고 있다. 거룩한 자는 충성스러운 신자들을 의미한다. 따라서 더러운 자는 불신자를 포함한 교회 내의 불충스러운 신자들 의미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제기해야 할 질문은 요한계시록 22:12와 이것의 근접 문맥을 이해하는 데 시편 62편이 어떤 공헌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요한은 요한계시록 22:11에서 악인을 언급할 때 시편 62편에서 말하고 있는 악인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이런 주장은 요한이 요한계시록 22:11a에서 불의라는 단어와 이것의 동족 어원의 말(ὁ ἀδικῶν ἀδικησάτω ἔτι)을 사용한다는 점에 의해 지지를 받는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인정하는 바는 이 단어들은 아주 흔히 쓰이는 단어여서, 그 자체로는 우리가 현재 다루고 있는 본문에서 시편 62편이 쓰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충분한 근거로 쓰일 수 없다는 점이다. 하지만 우리가 증명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22:12는 시편 62:13(61:13, LXX)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요한계시록 22:15는 시편 62편(61, LXX)에서 여러 단어들을 가져다 씌므로써 이 시편을 암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런 모든 증거들은, 흔히 쓰이는 단어인 요한계시록 22:11의 ἀδικῶν과 ἀδικησάτω가 이 시편으로부터 왔다는 우리의 주장을 충분히 뒷받침해준다.

따라서 요한의 요한계시록 22:12에서 시편 62편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불의라는 단어는, 시편 62편에서 묘사하고 있는 악인의 이미지를 연상시킨다. 시편 62:11의 히브리어 본문은 분명하게 악인들이 불의를 의지한다고 보고 있다.

시 62:11

אֱלֹהֵי־הַבְּטָחוֹ בַּעֲשָׂק וּבְגֹזֶל אֶל־תִּהְיֶה לָּוִי כִּי־יָנוּב אֶל־הַשִּׁחוֹ לָבֹ:

칠십인역의 시편 61:10, 11도 불의를 의지하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다. 우리가 주목해볼 것은 시편 61:10, 11(LXX)이 ἀδικέω와 그것의 동족 유사어를 사용해 악인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 61:10, 11 LXX

πλὴν μάταιοι οἱ υἱοὶ τῶν ἀνθρώπων ψευδεῖς οἱ υἱοὶ τῶν ἀνθρώπων ἐν
ζυγοῖς τοῦ ἀδικῆσαι αὐτοὶ ἐκ ματαιότητος ἐπὶ τὸ αὐτό, μὴ ἐλπίζετε
ἐπὶ ἀδικίαν.

이 단어들은 사람들을 권면하는 대목에서 쓰이고 있는데, 불의를 의지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시편 61편(LXX)에서 이 ‘불의’라는 단어는 시장에서 돈을 버는 행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계시록 저자가 시편 62편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요한계시록 22:11, 15에서 암시하고 있는 심판의 기준을 이해하는 데 빛을 던져 준다. 시편 62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간의 권력과 세상적인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도록 촉구하는 시이다. 따라서 요한이 시편 62편을 요한계시록 22:12에서 사용한 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암시한다. 즉 불신자들과 교회 내에 있는 불충한 사람들은 그들이 인간의 정치적 권력과 세상의 재물을 의지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것임을 암시한다. 요컨대 요한계시록에서 인간의 권력에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한다는 시편의 이 구절은 요한계시록의 역사적 배경이 되는 로마의 황제숭배(권력)와 경제력(재물)에 타협하는 것으로 재해석되고 있다.

VI. 결론

계시록 저자는 요한계시록 22:11과 22:15의 악인을 묘사하는 부분에서 시편 62편(61, LXX)에서 가져온 여러 단어들을 사용한다. 이 시

편의 악인들이 불의를 의지하고(11절), 살인하고(4절), 또 거짓을 좋아하는 것처럼(5절), 요한계시록 22:11-15의 악인들도 불의를 행하고(11절), 살인을 저지르고(15절), 거짓을 행한다(15절).

또한 중요한 점은 요한계시록 22:11-15의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의 악인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모두 시편 62편(61, LXX)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ὁ ἀδικῶν ἀδικησάτω ἔτι καὶ ὁ ῥυπαρὸς ῥυπανθήτω ἔτι, καὶ ὁ δίκαιος δικαιοσύνην ποιησάτω ἔτι καὶ ὁ ἅγιος ἁγιασθήτω ἔτι.(계 22:11)

ἔξω οἱ κύνες καὶ οἱ φάρμακοι καὶ οἱ πόρνοι καὶ οἱ φονεῖς καὶ οἱ εἰδωλοάτραι καὶ πᾶς φιλῶν καὶ ποιῶν ψεῦδος(계 22:15).

또한 시편 62:13(61:13, LXX)을 요한계시록 22:12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과 더불어, 이 시편에서 여러 단어들을 가져다 사용하고 있다는 점은 요한이 이 시편의 전체 문맥을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이러한 시편 62편의 사용은, 요한이 이 시편이 다루고 있는 심판의 기준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과 비교해서 의지할 수 없는 인간의 권력과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을 것이라는 행위 심판을 언급할 필요가 있을 때 마다 요한은 시편 62편(61, LXX)을 의도적으로 사용한 다. 이로써 계시록 저자는 요한계시록 22:11과 15절에서 말하는 심판의 기준이 참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금방이라도 깨어질 것 같은 인간의 권력과 재물을 의지하는 것임을 암시한 것이다.

참고문헌

- Aune, David E. *Revelation 17-22*. WBC. Nashville Thomas Nelson Publishers, 1998.
- Bauckham, Richard. *The Climax of Prophecy: Studies on the Book of Revelation*. Edinburgh: T. & T. Clark, 1993.
- Beale, G. K. *The Book of Revelation: A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NIGTC. Grand Rapids: Eerdmans, 1999.
- Beasley-Murray, G. R. *The Book of Revelation*. London: Marshall, Morgan & Scott, 1974.
- Boring, M. Eugene, *Revelation: Interpretation, A Bible Commentary for Teaching and Preaching*. Louisville: John Knox, 1989.
- Brueggemann, Dale A. "The Use of the Psalters in John's Apocalypse." Ph.D. diss.,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1995.
- Fekkes, Jan. *Isaiah and Prophetic Traditions in the Book of Revelation: Visionary Antecedents and their Development*. JSNTSup 93. Sheffield: JSOT Press, 1994.
- Giesen, Heinz. *Die Offenbarung des Johannes*. Regensburg: Pustet, 1997.
- Mounce, Robert H. *The Book of Revelation*, Revised Edition. NICNT. Grand Rapids: Eerdmans, 1998.
- Prigent, Pierre. *Commentary on the Apocalypse of St. John*. Tübingen: Mohr Siebeck, 2001.
- Sweet, John. *Revelation*. London: SCM, 1979.
- Vos, Louis Arthur. *The Synoptic Traditions in the Apocalypse*. Kampen: Kok, 1965.

■ Abstract

Judgment According to Works in Revelation 22:11-15

Kyung Sik Kim

(Asia United Theological University)

The current article aims to make a contribution to a better understanding of judgment according to one's works in Revelation. In particular, this study intends to examine judgment according to works in the light of the use of Psalm 62:13 in the context of judgment in accordance with one's deeds. We analyze Rev 22:12 which summarizes the concept of judgment by works in Revelation. First, the present examination deals with the question of whether Psalm 62:13 is really used in Rev 22:12 and then analyze the broad context and structure of Revelation 22 (the epilogue in particular). Finally, on the basis of preliminary discussions, we treat the analysis of John's use of Ps 62:13 in Rev 22:12.

The author of Revelation employs Ps 62:13(HB) in conjunction with Isaiah 62:11 in Rev 22:12. In addition, he uses the Hebrew text of Ps 62:13 rather than Ps 61:13(LXX), while translating Ps 62:13(HB). John alludes to Ps

62:13 in Rev 22:12 in the context of exhortation in the epilogue of Revelation (22:6-21). The exalted Christ is described as the one who will come and repay each one according to his deeds.

Next, this study looks into the context and structure of the epilogue of Revelation(Rev 22:6-21). There has been debate concerning the unity of the epilogue in terms of the speakers. However, our study shows that Rev 22:10-16 is composed according to a chiasmic structure with its center being Rev 22:12bc in which Christ's second coming and judgment based upon individual's deeds is stated.

John draws on words from Ps 62 to describe the ungodly and in so doing, he evokes the whole psalm to take into account the criteria of punishment: trust in unreliable human power and worldly riches. Furthermore, the criteria of repayment that John has in view in Rev 22:12 are exactly the same ones of judgment that is concerned in Ps 62. The use of the words drawn from the psalm, along with the use of Ps 62:13(Y 61:13) in Rev 22:12, strongly supports the view that John considered the original literary context of the psalm. This also indicates that John has in view the criteria of judgment(punishment) which the psalm is concerned with: trust in human power and wealth which are unreliable in comparison with God. John intentionally alludes to Ps 62(61, LXX) when he needs to mention the judgment of each person according to works. By doing so, he implies that the criterion of condemnation in Rev 22:11 and 15 is one's trust in fragile human power and wealth rather than the true God.

주제어 :

행위 심판, 요한계시록 22장, 시편 62편, 칠십인역 시편 61편
(judgment according to works, Revelation 22, Psalm 62, Psalm 61[LXX]).